



“약수합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견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합의”

文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FTA 보다 대북공조 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를 거론하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아차 부품업체 ‘5대 악재’에 허덕

광주시 ‘통상임금 소송 영향 파악’ 55곳 경영실태 조사

광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등 5대 악재에 직면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기아차 부품업체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 내 부품 생산 감소’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 계획에 맞춘 ‘신규 인력 채용’, 금융권 위축으로 인한 ‘신규 대출 규제’와 대출 상환 압박’ 등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7일 광주시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지역 부품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부품기업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 요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그 피해를 납품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지역 부품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이번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

납품단가 인하 고통분담 우려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걱정 커

중국 현지 공장 납품 절반 뚫

신규 대출 규제 경영난 가중

소할 것에 대비, 최근 1조원에 달하는 손실예상비용(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미리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종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판결 결과 노조측 청구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는 기아차의 손실이 지역 부품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날

1~2차로 나눠 광주지역 기아차 협력사와 주요납품기업 55곳을 방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품업체들은 기아차 통상임금과 관련, 현재까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눈에 띄는 악영향은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면 어떤 형태로든 ‘고통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기아차 협력 부품업체 중 상당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의 납품 단가 인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면 협력업체 한 곳당 연 8억~13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부품업체 중에선 기아차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도 있었다.

또 기아차의 신차 출시를 앞두고 업체당 최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도 많았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부품 생

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공장의 납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있었고, 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노조 파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부품업체에 떠넘기던 대기업의 관행이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광주시와 정부 차원에서 운영자금 대출 지원에 나서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광주·대구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달빛동맹 한마음행사 ‘2017 달빛소나기’

18~19일 이틀간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광주일보에는 광주와 대구의 공조 체제를 통한 교류 협력의 틀을 구축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2017 달빛소나기’를 오는 11월 18일(토)~19일(일) 개최합니다.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

주를 뜻하며,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달빛소나기’는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행사라는 의미로서, 광주와 대구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장(場)입니다. ‘2017 달빛 소나기’가 양 지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11월 18일(토) ~ 19일(일)
- 장 소 :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
- 문 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 주요 프로그램

11월18일(토)	part1.달빛 소통	14 : 00 ~ 16 : 00	탐방 프로그램(대구삼성창조센터)
	part2.달빛 나눔	17 : 00 ~ 21 : 00	석식/개막식/멘토특강 (유지철배우 민우혁)/달빛콘서트
11월19일(일)	part3.달빛 기쁨	09 : 00 ~ 14 : 00	투어 프로그램(유지엄 투어 외)

- 주최·주관 : 광주일보, 영남일보
- 후 원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光州日報社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2018년 5월 18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히로시마) 직항 전세기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하계 [10. 13(금)~10. 27(금)] 무안(18:20)→기타큐슈(19:30)/기타큐슈(20:00)→무안(21:20)
동계 [10. 29(일)~03. 30(금)] 무안(18:00)→기타큐슈(19:10)/기타큐슈(19:40)→무안(21:00)

항공 3일

북 규슈 온천펜션 499,000원~

북 규슈 549,000원~

야마구치 559,000원~

항공 4일

북 규슈 749,000원~

야마구치 769,000원~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금액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해외여행 :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법(가맹)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작곡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다낭·후에·호이안 직항 전세기

2017. 11. 17(금) ~ 2018.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다낭(10:40) / 다낭(14:40)→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다낭(00:10) /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프링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99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노팁·노음선] 하트프링오션+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출발) 94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 다낭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